

# 보건복지 소식 광장



# 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22년 7~8월 보도자료([http://www.mohw.go.kr/front\\_new/al/sal/0301ls.jsp?PAR\\_MENU\\_ID=048&MENU\\_ID=0403]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D=0403)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## I

###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한다.

-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·지원 -

■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 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고도화하고 돌봄·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치매 정책을 집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-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치매안심통합시스템과 건강검진(인지기능장애검사)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치매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예정이다.

- 향후, 치매안심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나아가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“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”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.

- “(가칭)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”\*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,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·의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

\*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 관리, 가족 대상 상담·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,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치료·관리 효율성 제고

○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치매안심마을의 확산을 위하여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를 공모를 실시하여, 서울 동대문구 등 28개 시군구를 선정하고 예산(총 17억여 원)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
-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,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따라 읍면동 단위로 조성하는 마을\*이다.

\* 2017~ 2018년 일부 지자체를 대상 시범사업 실시 후 2019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여 현재 641개 마을(21년 기준)이 운영 중

■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(치매 환자 실종 대응)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 동대문구는 “스마트 울타리 사업”을 통해 관내 택시회사,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치매 환자 실종에 대응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.

- 광명시는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우려되는 치매 환자에게 “스마트 태그”를 보급하여 실종을 예방할 예정이다.

- 남원시는 “25시 치매 돌봄 구축”으로 치매 환자 가정 내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위치확인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.

○ (인지 프로그램 운영) 목포시는 “다시, 청춘 GO!”를 통해 입학식부터 졸업식까지 “학교생활”을 재연하여 치매 환자의 교류를 지원하고 인지기능, 신체기능, 사회성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.

- 의성군은 “기억보듬학교”운영\*을 통해 단체학습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인지기능 개선을 추진한다.

\* 지역자원연계반(경찰서, 소방서 연계 안전교육), 실용학습반(한글교실 등), 인지놀이반(만들기 교실 등)

○ (힐링프로그램 운영) 속초시는 “休 + culture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”을 통해 치매 환자 돌봄으로 휴식이 필요한 보호자들을 위해 시립박물관, 자생식물원, 죽육 공원을 즐기는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.

- 함평군과 양산시는 각각 테마여행과 가족나들이 야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  - (가족 돌봄 및 상담 제공) 안양시는 “우리 동네 마음충전소”를 통해 치매 가족 부양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분석하여 상담 및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  - (인식개선 홍보)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치매안심마을 내 공원에 치매 환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계절꽃을 심고 치매극복행사를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.
-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“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라며,
- “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치매 관리 허브기관으로 강화하고 치매안심마을의 확산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**참고** **치매안심마을 사업 개요**

■ 목적

-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,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

\* (치매안심마을)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, 일반 국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

<b>목적</b>	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
<b>목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역사회는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한다.</li> <li>· 지역사회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.</li> <li>· 지역사회는 치매환자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원한다.</li> </ul>
<b>추진 전략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함양을 위한 치매인식개선 교육·홍보를 실시한다.</li> <li>· 치매 안전망을 위해 치매안심가맹점과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정하고 치매환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.</li> <li>· 치매환자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</li> </ul>

■ 주요사업 내용

- (교육) 운영위원회 참여기관·단체 구성원 및 지역사회 일반 주민 치매 인식개선 교육 실시
- (홍보·인식개선) 치매친화사업장 지정, 홍보물 배포, 캠페인 등
- (사회활동 지원) 정서적 지원, 도구적 지원, 정보 제공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

■ 치매안심마을 선정

- 지자체 여건 및 특성에 맞춰 행정구역(동 또는 리) 단위로 선정
  - (현황) 전국 641개 치매안심마을 운영('21.12.31.기준)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655.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2022.7.26.

## II

##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

- 「아동기본법」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제2차 토론회 개최 -

-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(원장 윤혜미)은 7월 29일(금) 오후 2시 용산 청소년센터(서울 용산구 소재)에서 제2차 “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”를 개최하였다.

\* (가칭) 아동기본법: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,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, 사회,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

- 이번 제2차 공개토론회(포럼)는 ‘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’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와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.

- 김지홍 교수는 생애주기별 아동 건강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면서,

-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과 조기개입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 영유아검진 수검률을 높이고, 학생건강검진(교육부 소관)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으로 통합하여 연속적 국가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.

- 손정우 교수는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·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며,

-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, 아동기본법에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권리가 반영되어야 하고,
- 아동 정신건강 관련 부처(보건복지부, 교육부, 여성가족부)간 협조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.

-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신의진 교수(연세대)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, 김현수 교수(한양대), 이문수 센터장(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), 임희진 연구위원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), 김지연 과장(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)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다.

- “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”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 보장,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「아동기본법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,

- 지난 7월 14일 “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”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,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.
- 보건복지부는 지난 1차 토론과 이번 2차 토론에 이어 아동의 놀 권리와 쉼 권리,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,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세 차례의 토론회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.
-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(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, <https://youtu.be/7IySFmx05dM>)이 가능하며, 사전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.

※ 온·오프라인 방청 신청은 해당링크 <https://naver.me/5XUw0eVu> 또는포스터 내 큐알코드(QR코드)를 통해 가능

(접수기간: 각 회차별 토론회 이틀 전까지 가능,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)

-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“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”라고 언급하며, “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아동기본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669.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022.7.29.

Ⅲ

**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**

- 8월 추계를 시작으로 장기재정전망 도출 및 개혁안 마련 -

■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(수) 오후 4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2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(위원장: 조규홍 제1차관, 이하 ‘심의위’)를 개최하였다.

○ 이번 심의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(안)을 논의하였다. 추진계획(안)의 주요 내용은 ▲재정계산 추진방향, ▲재정계산위원회 구성·운영계획(안), ▲추진 일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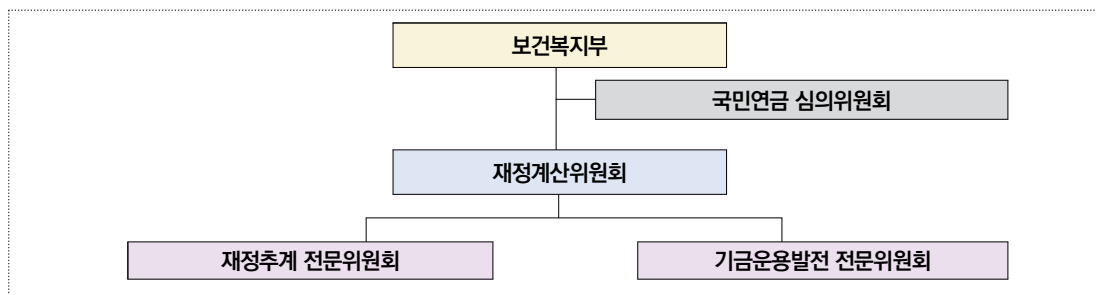
〈 재정계산 추진방향 〉

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한다.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사회적 합의 기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.

〈 위원회 구성·운영 방안 〉

■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,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도록 한다.

〈 제5차 재정계산 추진체계 〉





- 각 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.
  -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,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,
  - 재정계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각 2명을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.

〈 추진 일정 〉

-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여 8월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, 재정계산위원회,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.
- 각 위원회 운영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,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도 수립하여 2023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  - 한편, 향후 재정계산 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-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(위원장)은 “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중 착수하고,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, 실현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**참고**    **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**

---

- 추진 배경
  - (목적)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
  - (근거) 국민연금법(제4조제2항) 및 시행령(제11조)에 따라 5년마다 실시

\* 제1차 재정계산('03), 제2차 재정계산('08), 제3차 재정계산('13), 제4차 재정계산('18)

■ 주요 내용

- 재정추계를 통한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「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

\*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의 계산과 재정전망, 제도개선, 기금운용계획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포괄하는 과정

- (국민연금재정전망) 향후 국민연금의 수입·지출 추계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적립기금 추계를 통한 소진연도 예상 등
- (국민연금제도개선) 국민연금 운영방식, 향후 보험료율, 각종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도출

■ 재정계산 추진과정

- 재정추계 및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, 재정계산 위원회 구성
-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
  -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및 결과 발표('23. 3월)
  - 국민연금 제도·기금운용 개선 논의 및 발전방안 마련
-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(안) 수립 및 대국민 공청회
-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
- 국회제출 및 언론 공시('23. 10월)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694.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2022.8.10.

IV

**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에 심표를 더하세요**

- 코로나19 관련업무 종사자 대상 소진관리프로그램 '마음심표' 운영 -

■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인력(의료진, 소방, 심리지원업무, 행정업무 등)을 대상으로 소진관리프로그램 '마음심표'를 9월 1일(목)부터 11월 30일(수)까지 집중 운영한다.

○ 소진관리 프로그램은 재난 대응인력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·관리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나, 소진관리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\*하고, 신청 절차도 번거로워 참여자가 많지 않았다.

\*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문조사 결과, 응답자의 67.1%가 소진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고, 31.6%가 소진관리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사유로 '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'이라고 응답(2021년, 국가트라우마센터)

○ 한편,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30%에서 우울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\*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,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.

\*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정신건강 및 소진실태조사, 2021년, 국가트라우마센터

○ 이에 따라, 대응인력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,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\*하고 개인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여 추진한다.

\* (기존) 국가트라우마센터(서울) 1개소 → (확대)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4개소 추가 운영

■ 소진관리 프로그램 '마음심표'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트라우마센터에서 진행되며, 개인 또는 단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.

○ 개인이 신청할 경우 기본프로그램(마음건강평가, 소진관리교육, 소진관리집단상담)과, 본인의 희망에 따른 선택프로그램(치유요가, 숲치료, 사이코드라마 등)에 참여할 수 있다.

○ 단체나 기관에서 신청할 경우 찾아가는 소진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, 이때에는 기본프로그램(마음건강평가, 소진관리교육, 소진관리집단상담)을 제공한다.

- 소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.

\* 수도권(02-2204-1439), 호남권(061-330-7724), 영남권(055-520-2785), 강원권(033-260-3274), 충청권(041-850-5883)

- 소진관리 프로그램 기본프로그램(마음건강평가, 소진관리교육, 소진관리집단상담)과 선택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마음건강평가는 마음건강과 소진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로 검사결과를 개인에게 제공하고, 고위험 대상군이 요청할 경우 트라우마센터에서 심층상담을 제공한다.
- 소진관리교육은 소진에 대한 정의 및 평상시 소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한다.
- 소진관리집단상담은 스트레스 및 소진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소진을 완화시키는 상담프로그램이다.
- 선택프로그램은 치유요가, 숲체험, 연극치료, 소진캠프 등 소진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으며, 개인별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.

- 소진관리 프로그램 ‘마음쉼표’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이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으며,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.

-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(www.nct.go.kr)을 통해 8월 22일(월)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하므로, 미리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.

\*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(www.nct.go.kr)→코로나19심리방역→소진관리프로그램

- 보건복지부 광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“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소진 예방이 중요하다.”라며,

- “2년 넘게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-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“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응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으로,

‘마음쉼표’ 참여를 통해 소진을 완화하고, 스스로 예방과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701.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022.8.16.